

인도 델리, 증오범죄 피해자 보상 中 창사, 차오종거리 유적지 개발

서울연구원, 세계도시 동향
美 시카고, 기후동행계획 수립
도심기온 상승에 피해대책 마련



3일(현지 시각) 시민들이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퀴어 프라이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AP 통신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증오·집단 범죄 피해자 보상금 지급, 유적지 주변 개발을 통한 역사 인식 제고, 기후행동계획 강화 등의 정책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증오 및 집단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증오나 다수에 의한 집단범죄가 일어난 경우 가해자를 찾기 쉽지 않고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증오·집단 범죄 피해자는 범죄 형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2만~100만루피(한화 약 32만~16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납치·살해·화상·폭행 등에 의한 범죄 형태를 기본으로 희생자의 부양가족 수·나이·치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집단 폭력 피해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2만~50만루피(한화 약 32만~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신 영구 장애가 발생하면 20만~50만루피(한화 320만~800만원)를 보상금으로 지원하며, 피해자가 살해당한 경우가

족들에게 30만~100만루피(한화 480만~1600만원)를 준다. 작년 기준 수혜자 수는 3692명에 이르며, 지급한 지원금은 7억2390만1500루피(한화 117억원)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은 "지역 주민이 증오범죄나 집단범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보통 직접적인 보상이 어려운 데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운영,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는 대한민국임시 정부를 비롯해 근대 유적지를 다수 보유한 차오종거리 일대를 역사·문화 구역으로 되살렸다. 차오종거리 북쪽의 테마는 전통이고, 창사 대한민국임시 정부 등이 자리한 남쪽의 테마는 역사다. 시는 차오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을 조성할 때 서로 막혀 있던 거리와 골목

을 뚫고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다.

서울연구원은 "차오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은 유적지 주변을 개발해 핫플레이스가 된 사례"라며 "중국의 젊은 세대가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역사를 배우면서 한·중 우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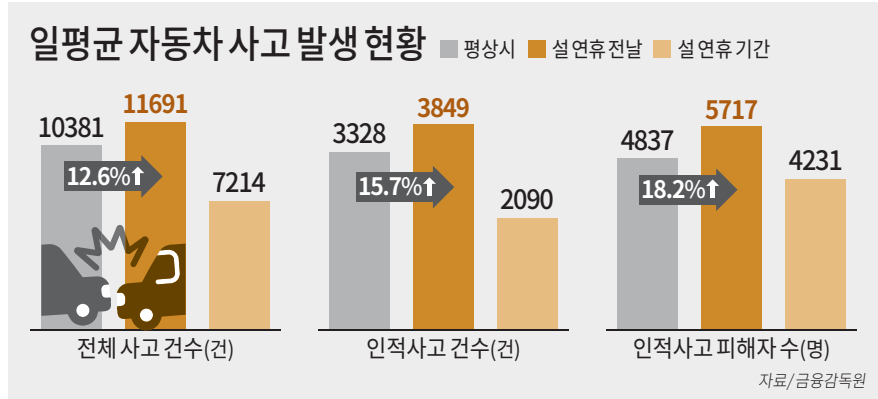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도심기온 상승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기후동행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 1995년 7월 여름에 5일간 폭염이 지속돼 739명이 사망했다. 적절한 냉방 시설 결여, 높은 요금과 낮은 접근성, 범죄 노출 공포로 인한 환기·외출 자제 등이 사망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는 탄소 감축과 환경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후동행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청정·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친화적인 교통인프라 정비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등과 함께 극심한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 ▲온·냉방시설 관리 ▲녹지 확보 ▲대기질·수질 관리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서울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설 연휴 교통·음주사고 급증 '주의보'

금감원, 연휴 전날 교통사고 13% ↑
동승자 증가에 건당 피해자수도 증가

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도 크게 늘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15.7%, 18.2% 늘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사고건당 피해자수가 2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많았다.

음주사고는 설 연휴 전날 및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각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2.2%, 16.1% 증가했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역시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8.3% 늘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과 차량 수리비 수리비 절감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교대 운전을 대비해서는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 다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도 보장한다.

/안상미 기자 smahnl@

인천시, 차량 배출가스 저감에 235억 투입

운행차량 총 6303대 지원

인천시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35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6303대에 235억 원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1t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t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가격의 50~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덤프트럭)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학생 305명 1학기 농촌유학 떠난다

서울시교육청, 전년비 30%p 증가
초등학생·중 1~2학년 대상 진행
6개월~1년 간 농촌학교 재학 지원



농촌유학 유튜브 리틀 포레스트 캡처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유학 사업 참여 학생 수가 작년 대비 30% 가량 많아져 올해 300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3년간 누적 1050명의 학생이 농촌유학을 경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 예정 학생이 305명이라고 4일 밝혔다. 235명이던 지난해 1학기 대비 참가 인원이 29.7%p 올랐다.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정 정도 지원금을 주고 6개월~1년 간 농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서울시 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금 규모나 기

간이 축소됐음에도 농촌유학의 인기는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최근 생태환경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지난 3년간 농촌유학의 생태 친화적 감수성 증진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농촌유학 참여 서울 학생은 305명이다. 지역별로 ▲강원(신규 58명, 연장 32명) ▲전남(신규 54명, 연장 84명) ▲전북(신규 38명, 연장 39명)이다. 신규 신청은 강원 지역이, 연장 신청은 전남지역이 가장 많다.

청은 전남지역이 가장 많다.

거주유형은 보호자와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269명(연장 137명, 신규 132명)으로 가장 많다. 이 밖에 유학센터형 34명(연장 16명, 신규 18명), 홈스테이형 2명(연장)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63명으로 가장 많다.

올해 신규참가는 150명으로, 거주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132명이 가장 많다. 유학센터형으로는 18명이 참여한다.

학년별로는 ▲초1(21명) ▲초2(36명) ▲초3(23명) ▲초4(24명) ▲초5(32명) ▲초6(6명) ▲중1(5명) ▲중2(3명)으로,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이 가장 많이 신청했다.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신규 참가하는 학생들은 오는 20일부터 해당 지역(전남/전북/강원)으로 주소 이전 및 전학 신청을 한 후, 3월부터 농촌유학 지역에서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3 | 해질 / 17:59

2월 5일 (월)
음력 : 12월 26일

수도권 날씨
3 ~ 6°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2/6, 동두천 2/5, 백령도 2/4, 파주 2/5, 가평 1/5, 서울 3/6, 양평 3/6, 수원 4/6, 용인 4/6, 평택 4/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군, 예멘 후티 반군 또 공격... "미사일 파괴"
▲바이든, 민주당 첫 공식 경선 압승... 트럼프와의 본선대결 준비박차 /사진 뉴시스

▲연초 러시아 LNG 수출 소폭 감소... 작년 12월보다 8% 줄어
▲건강염려에 밤 9시면 잠드는 美 Z세대... "늦은 저녁 약속 싫어요"



▲후쿠야마 "美 우선" 트럼프, 동맹 희생시킬수도... 한일도 해당"
▲탄약 부족한 우크라이나, 공격력 보강용 '자폭 드론' 생산 박차 /사진 뉴시스